

# AI기반 美 자율차사에 전략 투자... 모빌리티 패권 확보 나서



운전자 정보 활용·고정밀지도 개발  
지난 9월 애플티브와 합작 회사 설립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최대 격 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취임을 전후로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협업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애플티브와 공동으로 미국 현지 합작 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미국

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솔루션 업체인 네트라다인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 자율주행 분야의 추격자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10일 현대차 미국법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센터인 현대크래들이 최근 네트라다인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네트라다인은 미국의 물류 업체 등의 차량에 장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카메라 '드라이버아이'를 통해 전방충돌 경고 등의 ADAS 기능을 구현하며 도로와 운전자 행동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으로 네트라다인이 수집한 도로와 운전자 정보를 활용해 '레벨 3' 이상의 ADAS와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정밀지도(HD 맵)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상황에 맞춰 주행할 수 있는 레벨4 이상의 기술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네트라다인이 수집한 데이터 등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정밀지도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레벨 0~5까지 6단계로 구분하며 레벨 3은 운전자가 특정 상황에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인 애플티브와 손잡고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글로벌 업계에서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합종연횡이 활발한 가운데 유수의 완성차업체와 자율주행 기업이 별도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현대차그룹과 애플티브는 총 40억 달러(약 4조7800억원) 가치의 합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갖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현금 16억달러(약 1조9100억원)와 자동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개발 역량, 지적재산권 공유 등 4억달러(약 4800억원) 가치를 포함해 모두 20억달러(약 2조3900억원) 규모를 출자했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 규모는 연산 30만대 규모의 해외 공장을 2개 이상 건설할 수 있고, 외부업체에 투자한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자동차 본사.

## SK하이닉스 '글로벌 뉴스룸' 3개국어 제공

'기술·행복' 키워드의 콘텐츠 제공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고객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뉴스룸'을 오픈했다.

SK하이닉스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10월 10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구성된 글로벌 뉴스룸을 오픈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미국과 중국 고객은 물론이고 주주, 언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 뉴스룸은 '기술'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선 SK하이닉스의 제품과 기술을 비롯해 반도체 시장 트렌드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기고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회사 내 소소한 '행복'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 뉴스룸이 SK하이닉스의 행복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뉴스룸에서 보도자료 확인, 회사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경영진 인터뷰와 채용정보를 비롯해 회사의 다

양한 소식도 접할 수 있게 된다.

영문 및 중문 뉴스룸은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기 차별화된 콘텐츠로 운영한다.

영문 뉴스룸은 영어권 고객 및 해외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기술'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새너제이에는 낸드플래시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SK하이닉스메모리솔루션스가 있어 현지의 기업 문화와 최신 기술 개발 동향도 소개할 예정이다.

중문 뉴스룸은 중국 우시와 충칭에 있는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현지 법인의 운영 현황과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을 소개하고, 중국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각 지역과 홍콩, 대만 등에 있는 중화권 판매법인과 사무소의 생생한 현장 소식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중문 뉴스룸에 선보인 'SK하이닉스 패주본기'는 SK하이닉스 역사를 산수화를 기본 배경으로 무협지 형태로 소개해 현지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 "5G 선점 비결,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박정호 SKT사장, 獨 콘퍼런스서 연설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 주목해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한국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한 비결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우선으로 꼽았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달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5Germany' 국제 콘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5G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가'라는 주제의 화상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 및 5G 생태계 내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주요했다"고 밝혔다.

5Germany는 독일 교통·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BMW, 도이치텔레콤, 바스프(BASF), ABB그룹 최고경영자(CEO) 등이 5G를 통한 산업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박 사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해냈지만 초기 상황이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며 "고객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LTE 때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가 증가해 현재 약 300만 명"이라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지난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5Germany' 국제 콘퍼런스. /SKT

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 5G 고객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40GB로, LTE 대비 약 4배 많으며 AR·VR, 클라우드 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연설 도중 전국 도심 속 공원에 개장한 'AR 동물원'을 깜짝 선보이며 초밀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5G 특구를 곳곳에 조성하는 '5G클러스터' 전략을 소개하고 "AR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동물 없는 동물원'이라는 기

업 캠페인에도 나서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독일 내 다양한 기업들과도 5G 여정(Journey)을 함께 하면서 자동차 제조,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5G 협력을 제안했다.

박 사장은 "한국 내 독일차 수요가 지난해 약 16만대로, 한국 수입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독일차에 5G와 AI가 결합된 T맵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탑재하면 이전까지 없었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현대로템, 박람회서 미래 모빌리티 제품 선보

현대로템이 국내 최대 로봇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로보월드'에 참가해 미래 산업환경에 대응한 로보틱스 기술과 무인화, 모빌리티 기술 등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전문업체'를 주제로 민·군 무인차량 겸용다목적 무인차량인 세르파와 이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통제시스템을 비롯해 웨어러블 로봇 3종을 살펴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세르파는 배터리를 이용해 구동되는 전기구동방식의 차량으로 근거리 및 원격 거리 통제장치를 통해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차량이다. 차량 앞의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화력지원, 감시정찰, 물자 후송 등 목적에 따라 민·군에 다양하게



2019 로보월드에서 참가한 현대로템 부스 전경.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 속도 시속 30km를 발휘하며 냉각수를 활용한 수냉식 배터리 시스템과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장거리 운행 및 사계절 운용이 가능하다. 또 공기가 필요 없는 에어리스 타이어를 적용해 험지나 전투에 사용시 펑크 날 위험이 없어 운용 손실이 없다.

또 현대로템은 현대차와 공동으로 개발한 HUMA(Human Universal Mobility Assist), ALAD(Active Lift Assist Device), H-프레임 등 3종의 웨어러블 로봇도 함께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 SK(주) C&C, AI 장착 드론으로 가스관 감시

충청에너지서비스와 공동 개발  
산지·위험지역·광범위 구간 등

SK(주) C&C가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에 인공지능 눈을 단다.

SK(주) C&C는 SK E&S의 도시가스 자회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주)와 함께 드론·주변 CCTV·모바일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파악·경고하는 '에이든 드론관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1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SK(주) C&C의 비전 AI(인간의 시각적 인식 능력을 재현한 인공지능) 솔루션 '에이든'과 연계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지나 위험지역·광범위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가스관 등의

감시 역할을 담당한다.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가스관 안전관리 분야에 활용한 것은 국내 최초다.

에이든을 연계한 드론의 첫 임무 지역은 충청에너지서비스(주)가 관할하는 충북 지역의 도시 가스 시설이다. 충북 지역 내 자율 비행 설정 경로에 따라 돌면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굴착 공사나 건설 장비 등의 접근을 찾아낸다.

'에이든 드론관제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 현장의 빠르고 정확한 파악과 위치 정보 제공이다. 에이든 드론 관제 플랫폼은 드론으로부터 가스배관 주변 상황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 분석한다.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연계해 현장의 실시간 영상에 시설물 정

보를 AR로 함께 보여주고, 위험 지역의 위치 정보(도로명 주소)를 제공해 빠른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굴착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땅 밑에 묻혀있는 가스배관 위치를 증강현실로 보여줌으로써, 미신고 굴착 공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주변 CCTV 정보나 모바일 영상도 에이든 드론관제 플랫폼이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 미감지 우려를 없앤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별도의 시스템 투자 부담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에이든 드론관제 플랫폼은 고객이 보유한 드론과 연계한 하면 언제든 적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